

| 해외사료공장 탐방 | CJ(주)

## 세계와 함께하는 CJ 사료 사업

- Leading Company of Feed & Integration in Asia -



신 대 철

CJ(주) 사료기획팀 : Specialist, Overseas Project

1973년 부산에서 시작한 CJ의 사료사업은 국내 축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온 역사를 바탕으로 1996년 인도네시아의 사료공장을 시작으로 동남아 및 중국, 터키, 인도에 사료 및 축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Global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1960년대 초 외국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국내 사료사업이 이제는 CJ에서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술로 해외에 사료공장 및 종계장, 종돈장을 짓고 현지의 인력을 채용하여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면서 당당하게 세계 유수의 사료, 축산 기업들과 어깨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CJ의 해외 사료사업은 10여년간의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진출대상국을 정하고 사업범

위를 결정해 진행되었다. 진출 초창기에는 인지도의 부족과 언어, 문화의 이질성으로 상당한 어려움도 많았으나 열정과 도전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나가면서 현재는 사업의 확장과 수익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996년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사료공장을 준공으로 현재는 인도네시아에 3개 공장과 11개 종계장, 필리핀 1개 공장과 종돈장, 베트남 2개 공장, 중국 9개 공장, 터키 1개 공장, 인도 판매 거점 확보로 총 5개국 16개 공장, 12개 종축농장 및 1개 판매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곧 해외 매출 비중이 곧 국내 매출 비중을 앞서는 명실상부한 Global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줌방(지명)공장 전경사진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1996년 동부 파수루안 사료공장 준공후 서부의 세랑 및 동부 줌방공장 추가



건설을 통해 총 3개의 사료법인(CJI, CJS, CJFJ)에서 1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에서 주로 양계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바섬과 칼리만탄 섬에 있는 총 11개의 종계장에서 100만수의 종계를 보유, 연간 최대 1억마리의 병아리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병아리를 공급하고 육계를 직접, 간접으로 사육,판매하는 육계 계열화 사업을 진행중으로 향후 수직, 수평의 완전 계열화를 목표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CP 등 다국적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품질과 지속적인 Brand 인지도 향상으로 상위권 업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필리핀>

1997년 10월, 준공된 CJ Philippines 의 공장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약 6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양돈, 양계, 양어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전국의 영업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모든 1,000 두 규모의 종돈장을 운영하면서 축산농가에 우수한 종돈을 공급하여 현지 축산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필리핀은 인구 85백 만, 1인당 국민소득 1천 불 대로 베트남 중국 등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고 육류 선호 국가이나 사료 생산량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향후 경제가 발전할 경우 사료시장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 <베트남>

2001년 준공된 CJ Vina Agri 의 룡안성 공장은 연간 12만톤 생산능력으로 호치민시 인근으로 양돈, 양계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대리점을 통해 판매해 왔으며 2003년에는 사업을 다각화 하여 연간 3만톤 생산규모의 새우사료 및 양어사료 공장도 가동, 사업을 하고 있다.



CJ Vina Agri는 2005년 북부의 하노이 지역에 제 2공장을 건설하면서 베트남 전 지역으로 입지를 확대하였고 우수한 품질과 Brand 인지도에 힘입어 룡안성의 기존 공장도 증설하여 남북 지역 연산 36만톤 체제로 가동중에 있다. 베트남은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와 농축산 산업에 대한 장려, 사료시장이 초기 발전 단계라는 면에서 CJ Vina Agri 의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

### <중국>

다른 해외 사업장 대비 늦은 2002년부터 사천성에서 생산을 개시한 CJ의 사료사업은 지역특



성에 맞게 농축사료를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의 원료를 잘 조달,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물류를 고려하여 중국 전역을 권역별로 나눠 공장을 건설한후 인근지역으로 확장해가는 전략을 펴고 있다.

사업특성상 대규모 공장보다는 소규모 공장을 거점별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CJ는 현재 사천성, 요녕성, 산둥성, 귀주성, 하남성, 강서성, 천진시, 흑룡강성, 호남성에서 사료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중국은 단일국가로는 세계 제2의 사료시장으로 커다란 잠재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 진출역사는 짧으나 현재 진출 법인의 안정화와 인근 지역으로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 <터키>

터키는 다른 해외사업과는 달리 공장을 짓지 않고 기존의 현지 공장을 인수하여 CJ Tur Yem이라는 명칭으로 2005년 5월부터 연산 8만 4천 톤 규모로 생산, 판매를 시작했다.

국토면적이 한반도의 3.5배, 인구는 7천1백만 명 규모로 이스탄불의 보스포러스 해협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뉘는 독특한 지형에 위치하고 있는 터키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종교적 특성상 소에 관련된 낙농과 비육우, 닭을 기르는 육계 그리고 양에 관련된 제품이 사료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낙농과 비육우 등 소의 사육규모는 한국의 10배 수준에 달하여, 시장이 큰 만큼 경쟁업체도 많은 터키 사료시장에서 단독 출자 기업으로는 한국 최초인 CJ Tur Yem은 낙농사료, 비육사료, 면양사료 등의 제품에 주력하여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또한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 중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CJ의 해외사료사업이 중국, 동남아시아 중심에서 유럽(서남아시아)까지 확대하게 되어 사료 뿐만이 아닌 CJ그룹이 유럽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로의 기대도 크다.

### <인도>

인도에는 CJ Feed India라는 이름으로 2007년 1월 첸나이 지역에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새우사료 판매사업을 시작으로 진출하였다. 인도는 연간 사료생산량 10백만톤 수준으로 세계 사료생산량 10위권에 진입하였고,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14.3%)을 보이고 있는데 새우사료는 높은 성장률과 고수의 축종으로서 초기 베트남 법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영업망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공장을 설립하여 향후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과 같이 CJ의 해외사료사업은 국내에서 40여년간 축적된 Know-How를 기초로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우수한 국내 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현지인에 의한 직접적인 해외 사업 운영을 위해 우수 핵심인력을 선발해 한국 본사에서의 교육 및 기타 사업확장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등 말빠르게 Global화 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